

■ 연구원 소식

○ 전북인물사전 단행본 신청 안내

- 지난 해 11월 출판된 "전라도 개도 1000년 기념 전북인물사전"이 필요한 회원께서는 2월 15일 이후 연구원 사무국으로 문의주시면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당초 발간량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아 50여부만 배포가 가능하오니 양해해주시고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2월 22일까지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정기이사회 안내

- 오는 3월 1일(금), 우리 연구원 2019년 정기이사회를 연구원 사무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8년 사업평가 및 2019년 사업계획 관련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이사회를 통해 승인된 2019년 사업계획은 이사회 이후 연구원 모든 회원에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안내되는 사업계획에 관한 상세한 문의는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제3차 해외역사탐방 안내

- 2019년 해외역사탐방이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역사탐방은 우리 연구원 운영위원인 전북대 고려인연구센터 윤상원 소장께서 직접 기획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와 러시아 연방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舊 소련의 레닌그라드) 답사를 통해 극동아시아 연해주에서 시작한 답사 길이 유럽의 발트해에 닿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뉴스레터를 통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역사로 남은 사진 한 장(1978년 2월 21일)



사진의 얼룩은 핏자국이 아니다

푸른 작업복을 입은 여성노동자의 옷자락에 묻어 있는 흔적은 흔히 “산업화 시기”라 포장되는 1970년대 한국사의 명암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진이다.

사진속의 주인공은 인천시 동구 만석동에 있는 동일방직 인천공장 노동자들이다. 동일방직은 재봉실, 면직물 등을 생산하는 방직회사로 고용 노동자는 약 1300여명이었으며 이중 절대 다수인 1200명 이상이 상산직 여성 노동자였다. 당시 노조는 있었지만 회사 측의 지시를 받는 어용 노조였고 그나마도 남자 기술직이 조합 간부직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여성 노동자들은 이에 저항해 1972년 한국 최초로 주길자 씨를 여성 지부장으로 선출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노동조합을 세웠다. 이것은 회사 측 뿐 아니라 당시 정부에게도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다. 한국노동운동사에서 최초로 여성지부장이 선출된 동일방직노동조합은 그동안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을 복사판처럼 대변하던 기존의 조합과 달리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바뀌어 갔다. 회사는 집행부와 열성조합원들을 협박, 폭행, 사표강요, 부서이동 같은 갖은 수단을 동원해 민주노조를 파괴하려고 하였다.

1976년 7월23일 대의원대회에서 회사는 대의원들을 매수해 고두영을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분노한 조합원들이 농성에 들어갔다. 7월25일 경찰 수백명이 들이닥쳤다.

"옷을 벗자, 벗고 있는 여자 몸에 그 누구도 손을 못 댄다!"

이 외침에 따라 여성조합원들은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나체시위'를 벌였다. 부끄러운 것은 옷을 벗은 조합원들이 아니라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의 몹이어야 했다. 이런 지난한 싸움 끝에 다시 민주노조를 쟁취했으나 회사 측에 섰던 유신정권은 민주노조 파괴 공작을 그치지 않았다.

1978년 2월21일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어도 똥을 먹고 살지는 않았다!"는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처절한 통곡소리가 새벽 찬 공기를 갈랐다. 민주노조에 반대하던 남성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이들이 회사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저지른 테러가 시작된 것이었다. 대의원 선거 투표함은 똥물을 뒤집어쓴 채 박살이 났고 노조 사무실에는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들은 가죽장갑을 끼고 방화수통에 담아온 똥을 노동자들에게 마구 뿌려댔다.

사무실 밖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투표를 하려고 작업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성 조합원들에게도 닥치는 대로 얼굴과 온몸에 똥을 바르고 뿌리며 심지어는 코와 입에 쑤셔 넣고 있었다. 기겁해 달아나는 조합원들을 끝까지 쫓아다니며 젖가슴에 똥을 집어넣는가 하면 아예 통째로 뒤집어씌우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짐승이나 다름없는 그들을 피해 달아날 곳조차 없었다. 노조의 요청에 따라 파견 나온 사복경찰관들과 담당형사들은 이 참혹한 광경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었고 민주노조 반대파에 의한 똥물테러로 선거는커녕 사무실마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테러를 당한 노동자들은 이 상황을 사진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노조에는 카메라가 없었다. 그들은 회사 정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진관이 하나 있다는 기억이 떠올랐다. 지부장 후보 이총각과 조합원들은 '추억'과 '우정'을 영원히 간직하려 사진을 찍던 회사 정문 앞 유일사진관으로 달려갔다. 아수라를 뒤로하고 새벽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잠에서 깨기 이른 시각이었지만 그들은 앞뒤 가릴 새 없이 사진관 문을 두들겼다. 잠시 뒤 인기척이 들리더니 주인 아저씨가 눈을 비비며 나왔다. 동일방직 노조 상황을 짧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뜻밖에도 아저씨는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리기라도 한 듯 먼저가 있으면 준비해서 뒤따라가겠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달려와 현장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우일사진관 사진사가 현장을 촬영한 것을 알아 찬 회사와 경찰은 그 사진이 나가면 국제적이고 안보적인 문제가 된다고 필름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그는 벌써 조합에서 가져갔다고 잡아떼었다. 이렇게 되어 유신정권과, 자본, 어용노조가 어떻게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을 탄압했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역사 속에 살아남게 되었다.

사진관을 운영중이던 이기복씨는 "10여명의 여공들이 똥물을 뒤집어쓰고 있었고 노조사무실과 사무장실 천장과 벽에 온통 똥물이었습니다. 또 몇몇의 여공들은 바닥에 누워 울고 있었습니다."고 회고하며 훗날 조합원들이 똥물의 흔적이 남은 봉투에 사진값을 모아 가져왔지만 도저히 받을 수 없어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동일방직 노동조합운동사 중)**

이기복씨는 노동조합 관계자나 운동권이 아니었음은 물론이고 평생 데모 한번 안해 보고 살아 온 평범한 시민이었다. 가끔 사진을 찍으러 오는 여성노동자들과의 의리고 뭐고 가슴이 벌벌 뛰는 경찰의 협박에 슬며시 사진을 내줄 수도 있었고 나아가 "조카같고 딸 같던 여공들이 빨갱이였구나"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양심의 고리를 넘겨 버릴 수도 있었던 평범한 시민이었다. 하지만 똥 범벅이 된 여성 노동자들의 '추억'을 만들어 웃음을 끌어내던 평범한 사진관 주인은 그 공포와 유혹을 넘어섰고 그는 우리 역사에 보기 드문 기록을 후세와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다. 때론 백 권의 책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설득력이 큰 법이다. 그가 없었다면 1970년대 산업화를 막아서는 불순분자들의 난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본과 권력의 <동일방직 똥물 사건>은 피해자들의 건조한 문자와 억울한 육성으로만 남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역사 속에 불세출의 위업을 이룩해야 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본때나는 '큰 자리'에 오르는 '인물'들이어야만 역사를 만드는 것도 아닐 것이다. 이만큼의 오늘이 오기까지 똥물을 뒤집어 쓴 여성노동자와 우일사진관 주인 아저씨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모래처럼 작지만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역사의 알갱이들을 만들어왔다. 지금의 자유를 만용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이만큼의 오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생각할수록 서러움은 커져간다.

■ 후원사업 안내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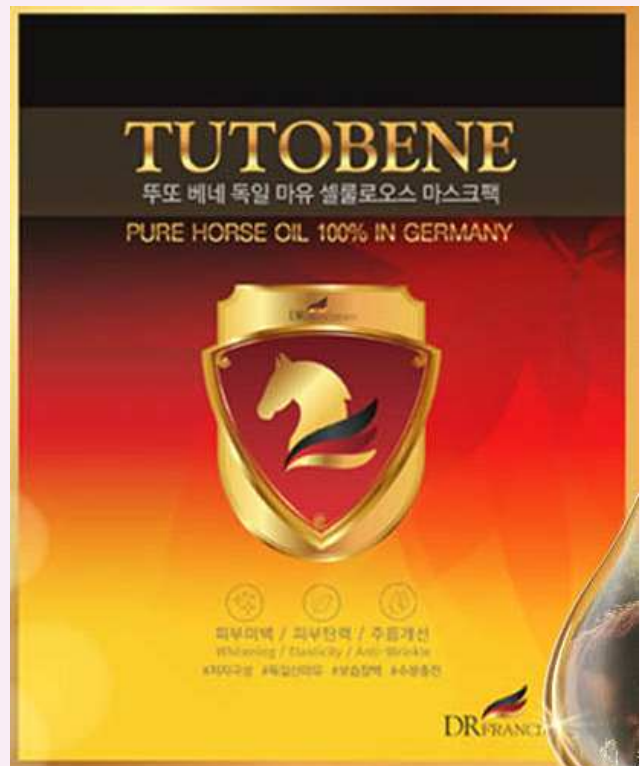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마유 팩 효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마유팩 25g * 5매 >



< 마유팩 30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4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 세럼 효능**

-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
- 고운 피부결과 화사한 피부톤 지원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마유 세럼 >

◇ 시 중 가 : 2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 원

◇ 시 중 가 : 6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3만 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